



水邊情談

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흔히들 숨쉬고 있는 공기의 존재를 모르듯이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의 존재 또한 쉽게 잊고 산다는 것을. 또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물의 근원이 바로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강이라는 것도.

매일 아침 지나가는 출근길 옆으로 푸른산 밑으로 넓은 한강이 시원스레 그 자태를 뽐내며 흐르고 있다. 어느 날은 그 맑은 물의 푸른색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느날은 산에서 시작되어 강으로 이어지는 물안개에 온 시

이유인즉, 물은 세가지의 덕을 지니는데, 그 하나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함이요, 또 하나가 물은 공명(功名)을 다투며 남과 싸우지 않음이요, 마지막 하나가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려 함이라 한다.

물은 모든 생물에겐 생명을 준다. 꽃과 나무에 매일 물을 주듯이 우리 인간들, 아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곳을 보며 살아들 간다. 높은 이상, 높은 명예, …….,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남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배신을 한다. 물은 이런 인간들에게 물의 부쟁(不爭)의 덕과 겸손의 덕을 배우라 한다. 물은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엔 큰 강이되고 넓은 바다로 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자신의 존재가 점점 커지는 이치를 배우라 한다. 언뜻 생각하기를 물은 그저 하찮은 존재라 여길지라도 한방울의 물방울은 결국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내어 깨지게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항상 고맙고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제자리에 없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물 또한, 홍수나 가뭄으로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의 일상의 의미를 느끼게 되듯이.

無思想의 원리를 논하던 老子

물의 인생론

야를 집중시키기도 한다. 커다란 건물들로 꽉꽉 들어찬 도시속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에.

흔히들 사람들은 물에서 많은 것을 얻고는 한다. 탁 트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또는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는 한다. 답답한 도시 속의 일상에서 벗어나 그런 삶의 안정을 얻기위해 일부러 시간을 쪼개어 그런 바다나 강을 보러 가는데 반해 매일 이런 강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아닌 듯 싶다.

인간의 덕과 선에는 세가지가 있다 한다. 상선(上善), 중선(中善), 하선(下善). 노자는 그중 으뜸가는 선이 물과 같다 한다.

조영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전무이사)

는 인간의 행동과 도덕의 본보기로서 물의 덕을 강조했다.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8장) - 상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과 싸우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天下之至弱 莫過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78장) - 천하에 가장 약한

것 중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나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을 당할 수가 없다.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43장) - 천하의 가장 약한 것이 천하의 가장 강한 것을 지배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는 물의 예를 들어 유승강(柔勝強)의 진리를 역설하고, 유약(柔弱)의 덕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처럼 살아야 한다. 물은 약한 듯하면서 강하고,

자유자재하면서 만물을 씻어주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아래로 쉽게 흘러 큰 바다에 이르며 남과 싸우지 않으면서 모든 강한 것을 이긴다. 우리는 최고선(最高假善)이며 자연의 으뜸가는 존재인 물의 덕을 배우고 물처럼 살아야 한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허나 인간의 도덕과 선이 점점 사라져 가는 요즘 이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